로컬플러스

부안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부안군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이창수)는 지난 24일 변산대명리조트에서 부안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을 키우는 보육! 부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직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1부 개회를 시작으로 2부에서 '좋은 인성은 잘 노는 것' 특강에 이어 비보이 공연 및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이창수 회장은 부안군 연합회 회원을 대표하여 나형태 해바라기어린이집 원장 외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군수 표창은 원광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현숙 외 6명, 부안 군의회의장 표창은 자연보물 어린이집 배현정 보육교사 외 2명이 보육 유공자 표창장을 했다.

이창수 부안군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려고 보육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재민 부군수는 축사에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부안군의 미래를 키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사랑으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26일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가졌다.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한국청렴윤리연구소장인 이지영원장(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 강사로 초빙돼 '사례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그 밖의 주요내용은 물론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어 봤을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법한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 감사관을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및 위법 행위의 신고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했으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대한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복지지원 맞춤형 컨설팅

김제시는 지난 23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희망복지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컨설팅은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 주관으로 전영호 연구원과 군산대학교 신영화 교수의 진행으로 희망복지지원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복지허브화 동(洞) 맞춤형복지팀 20명 대상으로 했다.

희망복지 지원단 중앙지원센터 전영호 연구원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우수사례 및 추진에 따른 희망복지지원담당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영화 교수의 통합사례관리 성과지표 분석 및 사례관리기법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 졌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에 실시된 맞춤형 컨설팅을 계기로 복지허브화 담당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내년국가예산 확보 총력

김생기 시장, 국회에 미반영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 9개 사업 요청

김생기 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가사업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 주재하며 국회를 방문, 내년도 정읍 관련 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김 시장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9개 사업에 대해 국회단계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서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9개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기상인 체험교육관 시설 확충사업, 제3공구 매립시설 조성공사, 정읍경찰서 신축 이전, 한국고등과학원 학술연구교류센터 건립, 화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이온화에너지이용 축산 부산물의 활용기술 개발, 농축산용미생물 제품인증 지원 사업, 정읍우체국 물류센터 신축 이전 이다.

김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반영된 사업의 예산 삭감 방지와 증액, 내년도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9개 사업의 추가반영을 위해 국회심의와 의결이 종료되는 12월 2일까지 정치권과 중앙부처 향우인사 등과 연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예산 확보 활동과 함께 이번 출장 기간 정읍 장학숙에 숙소를 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정읍 장학숙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학생과의 조찬면담을 통해 의견 등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또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목민관 클럽 포럼과 23일 국회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도 참석하는 등 정읍 장학숙을 서울 출장의 현장 사무소로 적극 활용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백산면 신흥단지 벼 무논점파 시범단지 32ha을 조성한 추진사항 및 작황을 관찰하며 현장에서 일반 벼농사와 비교·평가하는 자리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군, 벼 무논점파 현장 평가회

농업인 등 100여명 참석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26일 부안군 백산면 신흥단지에서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이장단 및 선도농업인, 전북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북 농협지역본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무논점파 현장 평가회를 가졌다.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은 기존의 직파재배 단점을 보완하고 기계 이앙재배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파재배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재배기술이다.

파종부터 이앙작업까지 모두 생략할 수 있어 노동력은 기계 이앙 벼농사 대비 약 35% 절감할 수 있고 생산비는 23%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최신의 벼농사 재배 기술이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김정곤 전 전북농업기술원장의 벼 무논점파 핵심재배기술 교육을 했었다.

이어 백산면 신흥단지 벼 무논점파 시범단지 32ha을 조성한 추진사항 및 작황을 관찰하며 현장에서 일반 벼농사와 비교·평가하는 자리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더욱이 백산면(면장 문숙자)은 평가회 행사 전 이장단회의를 갖고 농업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현안업무와 더불어 소·공·동 행정을 실천했다.

농업기술센터 김청환 식량작물팀장은 "수입 개방화에 따라 어려운 쌀 산업여건에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필수이므로 앞으로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조기에 정착시켜 부안군를 대표하는 작목인 벼농사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32ha에서 100ha로 무논점파 시범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이건식 김제시장은 그 동안의 주요 시정성과와 새만금 관련 사업,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 등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실현하는데 역대 시장, 군수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역대 김제 시장 · 군수 한자리에 모여 김제발전 논의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26일 역대 김제 시장과 군수를 초청 한자리에 모여 김제시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역대 시장·군수 간담회에는 유봉영 전 시장과 최봉규 전 군수 등 8명의 전·현직 시장·군수가 참석하여 그 동안 김제 발전을 위해 연구하던 아이디어와 경험 등을 논의하는 상생의 대화 시간이 되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그 동안의 주요 시정성과와 새만금 시대를 주도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변화하는 새만금에 대한 설명과, 기업하기 좋은 복합 산업도시 조성, 농업의 미래 농 생명 산업을 선도할 민간육종연구단지 육성,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장학산업 운영, 밝고 안전한 여성·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대한민국 최초 4년연속 대표축제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실현하는데 역대 시장, 군수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건식 시장은 "김제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역대 시장·군수님들의 공로가 컸다"며 앞으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을 위해 선배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역대 시장, 군수들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김제의 발전상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다문화가족 자녀 위한 '담뿍이 전달식'

교보생명과 알로하아이디어스 독서리더기 지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과 ㈜알로하아이디어스(대표 김지영)는 26일 김제시 다문화가족 20가정에게 자녀의 정서지원을 위한 도서리더기 "담뿍"과 동화책 600권 전달식을 가졌다.

다문화가정에 전달되는 도서리더기(담뿍)는 독서와 언어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운드 북으로 사회 유명인의 목소리 기부를 통해 전래동화 음원이 녹음돼 있어 책을 리더기에 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재미있는 동화를 읽어주는 독서 보조기다.

또한, 엄마·아빠의 목소리로 자국의 동화를 녹음해 들려줌으로써 자녀들이 항상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 엄마의 한국어 교육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엄마의 모국어를 배워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큰 만큼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 이에 센터에서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중 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가정 내 이중 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교육을 실시한 후 "담뿍"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최경석님은 두 자녀가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담뿍을 이용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좋은 기회를 주신 교보생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은 "김제시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교보생명과 알로하아이디서스에 감사드리며, 책을 가득담은 담뿍의 의미가 잘 전해지기를 바라며, 독서를 통해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교월동, 10월 국경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김태한) 직원들은 26일 '10월 국경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연중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이 가장 많은 10월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태극기 게양을 통한 '나라사랑, 김제사랑' 실천의지를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펼쳐졌다.

또한 캠페인 이후 직원들은 관내 향교에서 주민센터까지 조성·운영되고 있는 '365 태극기 거리'에 게양된 태극기를 정비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태한 교월동장은 "바쁜 일상속에서 나라의 소중함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중에는 '10월 1일 제68주년 국군의 날'과 '10월 3일 제4348주년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570돌 한글날'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어 각 가정에서는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젊은 가족단위 캠퍼 200팀, 약 800여명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읍 내장산 캠핑 페스티벌 '성황'

국민여가캠핑장서 200여팀 참가

캠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에서 대규모 캠핑페스티벌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립공원내장산 입구에 있는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에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안전한 캠핑 이렇게 즐겨요'라는 주제로 내장산 캠핑페스티벌이 열린 것.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젊은 가족단위 캠퍼 200팀, 약 800여명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과 안전 캠페인, 내장산에서 진행된 '숲을 알리자'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달빛 콘서트, 음식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형 야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마다 다양한 재료와 푸짐한 경품이 제공돼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고, 참가자들이 정읍에서 생산된 육류와 지역특산품 등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단풍미인홍보관도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생태와 자연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폭넓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숲을 배우자'와 '보물찾기 코너'는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렸다.

김생기 시장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참가 동기와 만족도, 보완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이번 대회 문제점 분석과 보완을 통해 캠핑관광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읍의 관광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김제 새만금내측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

새만금 내측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5일 부안 수협 대강당에서 김종회 김제 부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진태 부안 수협장. 이우창 김제 수협장.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원. 300여 부안·김제 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이 자리에 김종회 의원은 2015년 11월 이후 새만금 내측 어업에 대한 부관 부 어로활동 제한조치로 면세 유류공급이 중단되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새만금 내측 어업인 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새만금공사 만료전까지 한시적 면허를 허가하도록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꼭 어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